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5.4.(금)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0)		담 당 자	오 형 록 사무관 (02-2100-2937)	
	금투협 증권파생서비스 본부장 이 창 화(02-2003-9013)			김 영 돈 부장 (02-2003-9120)	

제 목 : 헤럴드경제 5.3일자 「QIB에 투자하라니,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땀질식 처방 도마」 제하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□ 헤럴드경제는 5.3일자 「“QIB에 투자하라니”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땀질식 처방 ‘도마’」 제하의 기사에서

① “현재 QIB 시장을 통해 발행된 채권은 128종류인데 이들 모두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채권(KP)이라고” 언급하며,

- “코스닥 벤처펀드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은 전무한 상태”라고 지적

② 아울러 “공모 벤처펀드는 개방형 상품 구조로 매일매일 펀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”라고 언급하며,

- 비상장 기업에 대한 CB, BW는 매일매일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공모 벤처펀드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계산하기 어렵다”고 지적

< 참고 내용 >

①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,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한 취지는,

○ 자산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모 코스닥벤처펀드가 CB, BW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

○ 그 간 QIB 제도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CB, BW가 발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투자수요의 부재에 기인한 것인 만큼,

- 공모 펀드의 투자수요와 벤처 기업의 발행수요가 매칭된다면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시장이 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

* 실제로 일부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QIB를 통해 무등급 벤처기업 CB, BW 등을 편입할 계획으로 알고있음

② 아울러, 코스닥 벤처펀드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,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,

○ 공정가액은 취득가격, 거래가격,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*가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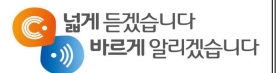
*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함

○ 코스닥벤처펀드가 비상장기업의 CB, BW 등을 편입한 경우에도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- **(QIB제도 개념)** 적격기관투자자*만을 참여가능한 채권시장으로
고위험·고수익 증권이 주로 거래되며 일반투자자에 양도는 제한

*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

- 공모시장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과하고 있는 각종 공시
의무가 대폭 완화*

* 발행공시(증권신고서) 및 정기공시(사업보고서) 면제

- **(제도 특성)** QIB제도는 사모와 달리 증권 발행정보의 등록·공시
등 공모의 특성을 내포한 준공모 제도

- 발행사·투자자 간 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되어 정보 취득이 어렵고
매매에 제약이 있는 사모에 비해, 시장투명성이 높고 QIB간
매매가 가능하여 유동성 제고 가능

- **(제도 도입)** 국내 중소기업 및 외국기업의 증권발행 수요와 고
수익을 추구하는 기관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('12.5월)

- **(발행기업 범위)** 국내기업의 경우 총자산 2조원 미만 기업, 외국
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으며 영문서류 공시 가능

- **(QIB채권 등록)** 발행기업은 QIB채권을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고
협회는 이를 공시함

< QIB 채권 등록 추이 (단위 : 십억원) >

구분	'12	'13	'14	'15	'16	'17	'18.4월
건 수	25	43	22	23	19	33	12
발행금액*	5,800	10,864	7,804	13,654	7,989	12,163	5,477

*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근사치에 해당

※ 주요 발행사 : GS칼텍스, SK텔레콤, 한화케미컬, 기아자동차, 한국동서발전,
한국수력원자력, 두산중공업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
KEB하나은행, 한화생명보험, 현대캐피탈 등